

# 일 지역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

## Affecting Factors in Job-seeking Stress among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방미란, 심선숙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Miran Bang(bmr@kduniv.ac.kr), Sunsook Sim(ssshim1003@kduniv.ac.kr)

### 요약

본 연구는 일 지역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018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년제 보건의료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92점, 외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9점, 대인관계는 5점 만점에 3.65점,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24점이었다.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및 대인관계는 모두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18.5%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보건의료계열 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공영역별, 개인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취업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외모 만족도 | 대인관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seeking stress in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A self-report typ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 total of 184 of college students in a city from June 11 to 15, 2018 were enrolled. The results are as followed; The strongest predictor of job-seeking stress was self-esteem ( $\beta=-.407$ ,  $p<.001$ ). Self-esteem, employment impact of appearance, academic grade accounted for 18.5% of job-seeking stress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reduce the job-seeking stress of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ersonalized employment program for each major field and individual that can improve the self-esteem of the individual.

■ keyword : | Job-seeking Stress | Self-esteem | Appearance Satisfac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 시대 청년들의 고된 삶의 요인에는 입시·군대·취

업·결혼 등 생활 속의 많은 스트레스들이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성인기를 맞이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접수일자 : 2018년 08월 22일

수정일자 : 2018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17일

교신저자 : 심선숙, e-mail : ssshim1003@kduniv.ac.kr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기침체와 사회 불안정 등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실업난 및 취업난,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으로[1], 그로 인한 취업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러한 청년실업 및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생들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하여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취업스트레스란 취업 준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를 이루어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느끼는 상태[5]로 취업 준비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자아탄력성, 신체증상,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구직기술, 자기효능감 등이 보고되고 있다[1][6][7]. 또한 윤우석[8]은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감을 예측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인이고, 자살 등의 부정적 행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다[9][10]. 신권섭과 조인주[1], 장용언 등[11]은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하며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승혜, 이해영[6]은 낮은 대학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부족, 취업준비 불만족, 취업고민을 공유할 사람 부재시,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였으며, 우울, 불안, 신체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승애[7]는 전공 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취업준비 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삶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자신의 외모가 사회의 미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를 비하하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12].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대학생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못지않게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외모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취업

스트레스와 외모만족도 간의 연구결과를 보면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는 부적상관관계[10][13][14] 있다고 하였다.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전공 특성상 졸업 후 대부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며 이때 대상자들과 원만하고 유익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안상원[15]은 대인관계는 집단 내 구성원들의 상호 간의 관계로 모든 사람들은 관계 내에서 살아가는 만큼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정의하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은혜[13]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청년 실업이나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타 전공자들에 비하여 취업률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취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변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더불어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강화하여야 할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절하기 위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중재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

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 지역 4년제 보건의료계열(간호, 치위생, 응급구조) 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다중회귀분석에서의 중간효과크기인 .15, 검정력 95%로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9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184부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6]가 개발하고 전병재[17]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0문항이며 부정문항인 3, 5, 8, 9, 10번은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전병재[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79이었다.

#### 3.2 외모 만족도

외모만족도 측정도구는 Mendelson과 White[18]의 신체적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심경옥[19]이 재구성하여 타당도를 확인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나타내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인 4, 7, 8, 11, 12, 13, 16, 17, 20번은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심경옥[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3.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sey[20]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2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도구사용 승인을 구한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개 문항, 7개의 하위 영역(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불만족스러운(또는 원만하지 못한)편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하는(또는 매우 원만한)편이다’ 5점까지 총점은 25-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문선모[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3.4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nell Medical Index: CMI)’[22]을 토대로 개발된 황성원[23]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토대로 강유리[2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2개 문항, 5개의 하위 영역(성격의 스트레스 요인 6문항, 가족환경의 스트레스 요인 5문항, 학업의 스트레스 요인 4문항, 학교환경의 스트레스 요인 4문항, 취업불안의 스트레스 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강유리[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하위 영역별 .78~.8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본인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와 개인정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실명이 없는 코드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거, 보관하여 설문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종료 1년 후 설문지는 분쇄 폐기할 예정이다.

####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 사후 검정으로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형제·자매 수는 '2명'이 73.9%(1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대상자가 58.7%(108명)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5.2%(120명)이었으며,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63.0%(116명)로 나타났다. 외모가 취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응답은 '외모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4.3%(100명)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4)

항목	범주	N(%)
형제, 자매 수	외동	10(5.4)
	2명	136(73.9)
	3명 이상	38(20.7)
전공 만족도	만족	108(58.7)
	보통	73(39.7)
	불만족	3(1.6)
학업성적	상위권(상위 30%)	38(20.7)
	중위권	120(65.2)
	하위권(하위 30%)	26(14.1)
성형수술 희망여부	희망함	116(63.0)
	희망하지 않음	68(37.0)
외모의 취업 영향 여부	외모가 아주 중요	100(54.3)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음	78(42.4)
	외모는 취업과는 무관	6(3.3)

####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4점 만점에 2.92±0.40점, 외모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2.89±0.50점, 대인관계 평균은 5점 만점에 3.65±0.45점이었다. 취업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2.24±0.65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학업스트레스'가 2.63±0.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환경스트레스'가 2.42±0.84점, '성격스트레스'가 2.37±0.8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N=184)

항목	M±SD
자아존중감	2.92±0.40
외모 만족도	2.89±0.50
외모 자신감	3.33±0.56
신체 자신감	2.22±0.61
대인관계	3.65±0.45
만족감	3.60±0.53
의사소통	3.66±0.55
신뢰감	3.51±0.66
친근감	3.80±0.58
민감성	3.87±0.65
개방성	3.46±0.61
이해성	3.82±0.61
취업스트레스	2.24±0.65
성격스트레스	2.37±0.84
가족환경스트레스	2.01±0.93
학업스트레스	2.63±0.91
학교환경스트레스	2.42±0.84
취업불안스트레스	1.62±0.75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전공 만족도( $F=17.82, p=.006$ )이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만족’군이 ‘보통’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외모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형수술 희망여부( $t=-3.849, p=.000$ )이었으며,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전공 만족도( $F=3.680, p=.027$ )이었다[표 3].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외모 만족도는 정적상관관계( $r=.602, p<.001$ ),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는 정적상관관계( $r=.524, p<.001$ ), 외모 만족도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N=184)

항목	범주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취업스트레스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형제, 자매 수	외동	3.12±0.40	1.274	.282		2.97±0.55	.161	.851		3.75±0.48	.583	.559		2.66±0.74	2.313	.102	
	2명	2.91±0.41				2.88±0.50				3.66±0.48				2.21±0.66			
	3명 이상	2.92±0.36				2.90±0.50				3.59±0.34				2.27±0.57			
전공 만족도	만족 <sup>a</sup>	3.00±0.40	5.215	.006	a)b	2.90±0.49	.348	.706		3.71±0.47	3.680	.027		2.15±0.64	2.596	.077	
	보통 <sup>b</sup>	2.81±0.37				2.87±0.51				3.59±0.42				2.37±0.66			
	불만족 <sup>c</sup>	2.87±0.64				2.68±0.41				3.11±0.23				2.50±0.45			
학업성적	상위권	2.87±0.34	.634	.532		2.83±0.45	.329	.720		3.74±0.46	1.038	.356		2.18±0.59	2.603	.077	
	중위권	2.95±0.43				2.90±0.52				3.63±0.45				2.21±0.64			
	하위권	2.90±0.31				2.89±0.48				3.62±0.45				2.51±0.76			
성형수술 희망여부	희망함	2.90±0.40	-.982	.327		2.78±0.48	-3.849	.000		3.64±0.47	-.354	.724		2.21±0.64	-.809	.419	
	희망하지 않음	2.96±0.39				3.06±0.48				3.67±0.42				2.29±0.68			
외모의 취업 영향 여부	아주 중요	2.96±0.39	1.426	.243		2.84±0.52	2.028	.135		3.67±0.46	.546	.580		2.34±0.68	2.425	.091	
	별로 중요하지 않음	2.89±0.42				2.96±0.48				3.64±0.46				2.12±0.60			
	취업과는 무관	2.75±0.16				2.63±0.20				3.48±0.37				2.24±0.75			

와 대인관계는 정적상관관계( $r=.432, p<.001$ )가 있었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는 부적상관관계( $r=-.380, p<.001$ ), 외모 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는 부적상관관계( $r=-.213, p<.01$ ), 대인관계와 취업스트레스는 부적상관관계( $r=-.234, p<.01$ )가 있었다[표 4].

표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N=184)

	외모 만족도 $r(\rho)$	대인관계 $r(\rho)$	취업스트레스 $r(\rho)$
자아존중감	.602 (.000)	.524 (.000)	-.380 (.000)
외모 만족도		.432 (.000)	-.213 (.004)
대인관계			-.234 (.001)

### 5. 일 지역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983-.997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3-1.018로 문제가 없었다.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공 만족도, 학업성적, 성형수술 희망여부, 외모의 취업 영향 여부,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를 투입한 결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407, p<.001$ ), 외모의 취업 영향 여부( $\beta=-.183, p<.01$ ), 학업성적( $\beta=.138, p<.05$ )이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 설명력은 18.5%이었다[표 5].

표 5. 일 지역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84)

	B	SE	$\beta$	t	p	tolerance	VIF
(상수)	4.206	.384		10.943	.000		
자아존중감	-.665	.110	-.407	-6.046	.000	.984	1.016
외모의 취업 영향 여부	-.213	.078	-.183	-2.722	.007	.983	1.018
학업성적	.154	.074	.138	2.067	.040	.997	1.003

F=14.88,  $p<.001$ ,  $R^2=.199$ , adj  $R^2=.185$

## IV. 논의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에서 2.92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현숙과 이미라[10]의 연구에서의 2.90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효정[25]의 연구에서의 2.96점과 유사하였다.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공 특성상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부터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웃음훈련 프로그램, 간호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효과가 확인된 다양한 프로그램[26-28]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현숙과 이미라[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적성보다는 취업 위주의 전공을 택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료봉사, 병원견학, 인성교육, 해외연수 등 전공 관련 다양한 활동을 많이 체험하도록 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외모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2.89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은혜[13]의 2.76점보다는 높은 반면, 김현주[29]의 2.97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 적성보다는 외모로 인정받고 내적아름다움보다 외향을 중요시하는 현 사회의 실정이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김미숙[30]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정서적 지지는 중국대학생 보다 높지만,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5점 척도에서 3.65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선숙과 방미란[31]의 연구에서의 3.70점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가 보건 의료계열 4학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전공 관련 현장실습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익숙해진 결과로 보여진다. 보건 의료계열 대학생의 경우, 추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지며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취업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2.24점(49.35점/110점 만점)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희와 김남희[32]의 연구에서의 2.69점보다도 낮았으며, 이인숙[14]의 연구에서 110점 만점에 52.56점, 황라일[33]의 연구에서 53.39점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보건 의료계열로만 특성화된 캠퍼스 소속 학생들이어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하위 영역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환경스트레스’ 2.42점, ‘성격스트레스’ 2.3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경희와 김남희[32]의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2.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환경스트레스’ 2.64점, ‘가족환경스트레스’ 2.55점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각종 기업이나 병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법을 도입하고 면접의 비중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용에 있어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보건 의료계열 대학생들은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만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튜터링 학습, 자기주도 학습, 적극적인 미달자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숲치유 프로그램,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대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취업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 대인관계는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10][11][13][14].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해야 하며,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성공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지지와 강화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 중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보건 의료계열은 자연과학분야이지만 지학년년부터 교양교과목을 통해 긍정적인 내면강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 음악 및 미술 프로그램, 체육, 전공 특성을 살린 전문가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외모 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보건 의료계열 대학생들도 다양한 면대면 면접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취업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유경[34]은 외모존중감이 낮을수록 성형의도가 높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윤경과 차남현[35]의 연구에서는 외형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무분별한 성형수술 및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외모에 대한 확고한 시선에서 벗어나 ‘좋은 인상 만들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외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균형 잡힌 건강한 체형을 위한 운동 등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인관계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선주, 김한홍[36], 이은혜[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을 접해야 하는 보건 의료계열 대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

력, 상황대처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 이수와 교과외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외모의 취업 영향 여부, 학업성적이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변은경 등[37]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전공학과, 양승애[7]는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김선주, 김한홍[36]은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가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이라고 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에게 우선하여 향상시켜 주어야 하는 부분은 스스로의 내적 요인을 향상시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학생활 초부터 적극적인 상담과 관심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은 타 전공자에 비해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요즘 젊은 층은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임상현장에서도 새내기 직장인들이 좀 더 편한 곳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또는 워라벨(work & balance)을 꿈꾸기 때문임을 직장 사직이유로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다. 취업을 성적이나 외향적인 조건보다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서 선택하도록 이끌어주는 체계적인 취업지도전략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학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강화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학년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2학년에는 성적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전공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며 병원견학 등의 학과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주도록 한다. 3학년에는 각 전공별 현장실습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학년에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대처 능력 증진을 위한 모의면접 프로그램,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보건의료계열 4학년 184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92점, 외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9점, 대인관계는 5점 만점에 3.65점,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24점이었다. 자아존중감, 외모 만족도 및 대인관계는 모두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18.5%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보건의료계열 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공영역별, 취업현장별 특성과 선호하는 취업처에 맞는 프로그램과 학년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전공계열별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 참고 문헌

- [1] 신권섭, 조인주, “대학생의 구직기술,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pp.143-160, 2013.
- [2] 김민정, 조공호,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제4호, pp.47-62, 2009.
- [3] 최미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39호, pp.347-375, 2017.



- [4] 조혜정, 이재경, 박은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외적 보호를 통한 의미 추구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9권, 제4호, pp.85-110, 2017.
- [5] 박은혁, 이용택,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 pp.5-30, 2013.
- [6] 최승혜, 이해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08-816, 2013.
- [7] 양승애,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4호, pp.171-183, 2017.
- [8] 윤우석,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pp.95-118, 2016.
- [9] 김혜정,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10] 전현숙, 이미라,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2016.
- [11] 장용언, 황명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제41호, pp.55-75, 2018.
- [12] M. C. Paquette and K. Raine, “Sociocultural context of women’s body image,” *Social Science & Medicine*, Vol.59, No.5, pp.1047-1058, 2004.
- [13] 이은혜, *대학생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14] 이인숙, “간호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자존감, 우울 및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487-2500, 2011.
- [15] 안상원,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6]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7] 전병재,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11권, 제1호, pp.107-130, 1974.
- [18] B. K. Mendelson and D. R. White,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ldren,” *Concordia University Research Bulletin*, Vol.12, No.2, pp.1-10, 1993.
- [19] 심경옥,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0] A. Schlein and B. G. Guernsey,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1971.
- [21] 문선모,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연구,” 경상대학교논문집, 제19권, 제2호, pp.195-203, 1980.
- [22] M. Shepherd, B. Cooper, A. C. Brown, and G. W. Kalton,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23] 황성원,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24] 강유리,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5] 김효정,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62-70, 2012.
- [26] 김혜정, 홍성균, “웃음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목표몰입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pp.305-311, 2015.
- [27] 서영숙, 최은정, 정추영,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제5권, 제3호, pp.925-935, 2017.
- [28] 정귀임, 손혜경, 권수혜, 박정숙, “간호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 존중감, 진로장벽인식정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진인간호과학학술지, 제10권, pp.43-52, 2017.

- [29] 김현주, *제주도내 대학생의 외모 만족도가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30] 김미숙, “외모만족도와 정서적 지지가 자기능력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만족의 매개효과-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제20권, 제1호, pp.91-116, 2018.
- [31] 심선숙, 방미란, “간호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634-642, 2016.
- [32] 이경희, 김남희,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965-978, 2012.
- [33] 황라일,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보건의간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pp.215-226, 2012.
- [34] 김유경,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외모도구성, 외모존중감, 그리고 성형의도간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제27권, 제5호, pp.171-186, 2013.
- [35] 김윤경, 차남현, “간호대학생의 외모만족도, 대인관계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489-500, 2016.
- [36] 김선주, 김한홍,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4권, 제1호, pp.75-84, 2014.
- [37] 변은경, 윤숙자, 김경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46-153, 2014.

저 자 소개

방 미 란(Miran Bang)

정회원



- 2001년 2월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5년 2월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기초간호, 기본간호

심 선 숙(Sunsook Sim)

정회원



- 2008년 8월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강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기본간호, 성인간호